# 더민주 4명·국민의당 2명…현역 32% 물갈이

## 野 광주·전남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1일 광주·전남지역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들어갔다. 양 당은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투표와 숙의배심원제 등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 경선을 진행했다.

더민주는 박혜자(광주 서구을)·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국민의당은 숙의배심원제로 진행된 광주 경선에서 현역 의원 모두가 경선을 통과해 대조를 이뤘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황주홍·김승남 두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었던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 김 의원이 탈락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전체 현역 19명 가운데 32%에 이르는 6명의 현역이 물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는 광주 8개 선거구와 전남지역 10곳 선거구에 대한 후보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다. 전날인 20일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경선에서 비례대표 신문식 의원이 곽동진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남지역 라인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더민주 소속 전남 지역구 현역 6명 가운데 김성곤(불출마)·이윤석(경선 탈락) 의원을 뺀 4명이 출마하게 됐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우윤근(광양·곡성·구례), 신정훈(나주·화순), 김영록(해남·완도·진도) 등 현역 의원 4명이 단수공천으로 전면에 섰다.

김성곤 의원이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갑은 송대수 후보가 경선을 통과했다. 경선 격전지였던 영암·무안·신안에서는 3선 군수 출신 서삼석 후보가 현역 이윤석 의원을 밀어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대항마를 선발한 순천 경선에서도 시장 출신 노관규 후보가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을 박빙의 승부 끝에 물리쳤다. 목포 조상기 후보와 여수을 백무현 후보는 원외 단수공천됐다.

광주지역은 강기정(북갑) 의원의 공천배제와 박혜자(서갑)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원외 인사들로만 총선을 치르게 됐다. 강 의원과 박혜자 의원은 공천배제와 경선 탈락을 인정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광주지역 최종 후보는 ▲동남갑 최진 ▲동남을 이병훈 ▲서구갑 송갑석 ▲서구을 양향자 ▲북구갑 정준호 ▲북구을 이형석 ▲광산갑 이용빈 ▲광산을 이용섭 등이다.

◇**국민의당**=광주지역은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지역구에서 모두 공천을 받았다.

공천배제된 임내현 의원이 유일한 탈락자다. 당 안팎에서 수도권 출마 요구를 받았던 5선 천정배 공동대표는 서구을에 단수공천됐다. 3선의 김동철 의원은 광산갑 경선을 여유 있게 통과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동남을에서 단수공천돼 무혈입성했다.

장병완 의원은 동남갑에서 결선투표 시행여부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 끝에 후보로 결정됐다. 권은희 의원도 광산을 후보로 선출되면서 경선에 출전한 현역 의원 3명 모두 본선에 진출했다.

원외 인사로는 북구갑에 김경진 후보, 서구갑에 송기석 후보, 북구을에 최경환 후보가 나섰다.

전남에서는 박지원(목포) 의원과 주승용(여수을) 최고위원이 단수공천됐다. 최근 입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영암·무안·신안에서 단수공천됐다.

황주홍 의원은 선거구 조정으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합쳐지면서 김승남 의원과 '현역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

여수갑 이용주 후보, 나주·화순 손금주 후보,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후보, 해남·완도·진도 윤영일 후보가 각각 경선을 통과했다. 순천,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선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당에서 현역으로는 유일하게 공천배제된 임내현 의원은 21일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의를 위해 제물이 되겠다"며 "야권재편과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 출마 염원을 가슴에 묻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이라며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새로운 3당 체제를 만드는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디딤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더민주 광주 2명 모두 교체

### 황주홍 '현역매치'서 승리

### 임내현 의원 백의종군 선언

■ 더민주vs국민의당 공천 확정자

| 구분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
| ◆ 광주 | | |
| 동남갑 | 최진 | 장병완 |
| 동남을 | 이병훈 | 박주선 |
| 서구갑 | 송갑석 | 송기석 |
| 서구을 | 양향자 | 천정배 |
| 북구갑 | 정준호 | 김경진 |
| 북구을 | 이형석 | 최경환 |
| 광산갑 | 이용빈 | 김동철 |
| 광산을 | 이용섭 | 권은희 |
| ◆ 전남 | | |
| 목포 | 조상기 | 박지원 |
| 여수갑 | 송대수 | 이용주 |
| 여수을 | 백무현 | 주승용 |
| 순천 | 노관규 | 경선 중 |
| 나주/화순 | 신정훈 | 손금주 |
| 광양/구례/곡성 | 우윤근 | 정인화 |
| 담양/함평영광/장성 | 이개호 | 22일 경선 |
| 고흥/보성/장흥/강진 | 신문식 | 황주홍 |
| 해남/완도/진도 | 김영록 | 윤영일 |
| 영암/무안/신안 | 서삼석 | 박준영 |

김종인 "나 없이 해봐라"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오후 용무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자신의 자택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 허술한 숙의배심원제…역시나 '현역 불패'

## 배심원단 숫자 규정도 없어…조직력 열세 신인들 불리

##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서정성·김승남 후보 불복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해 광주지역에만 도입한 '숙의배심원단' 제도가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허술한 당규와 시행세칙, 검증절차, 오락가락한 의사결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다수인 광주에만 숙의배심원단 평가를 100% 반영하기로 하면서 현역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역 불패'로 이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투표 경선과정에서 박혜자·이윤석 의원 등 현역 의원 2명이 탈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선 결과 인지도와 인물론, 중량감, 조직력 등이 고르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역이 유리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낳고 있다.

조직적인 배심원 잡기에 신진 세력들은 현역 의원들의 조직력을 따라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3명의 현역 의원 중 2명은 압도적 표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했고, 1명은 결선투표 규정을 놓고 논란을 빚은 뒤 우여곡절 끝에 후보로 선정됐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은 애초 지난 18~20일 광주 북갑·을, 서갑, 광산갑·을, 동남갑 등 6개 선거구에서 숙의배심원단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배심원단 숫자가 선거구별로 50여명에서 170여명까지 '들쭉날쭉'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헌·당규에는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 규정도 없어 혼란만 가중됐다.

또한, 결선투표 규정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장병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동남갑에서는 4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기로 한 규정의 해석을 놓고 후보들간 극한 대립을 보였다. 당은 경선 현장에서 결선투표를 했다가 결국 개표는 하지 않고 장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천을 확정했다.

탈락한 서정성 후보는 "당의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장병완 후보 겸 최고위원)가 들어가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며 이날 재심신청은 물론 '효력정지 및 개·투표 결과 발표 이행' 가처분을 서울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당헌·당규가 명확하지 않아 경선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이런 경선 갈등 때문인지 조정관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치개혁, 공천개혁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며 "오늘부로 공동위원장직을 떠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과의 '현역 경선'에서 탈락한 김승남 의원도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선 경쟁력 조사 결과 우리지역 3명 후보자의 합계가 김승남 41.6%, 황주홍 46.9%, 김철근 29.2%로 합계 117.7%로 나타났다"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김승남 35.34%, 황주홍 39.84%, 김철근 24.8%로 우리 당헌당규 47조 1항에 의거해 최다득표자의 득표 40%를 넘지않아 1,2위간 결선투표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선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문제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 기준 백분율과 정치신인 가산점 등을 합산하는 뒤 발생하는 조정 백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짓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문화콘텐츠·자동차·신재생에너지 '3대 밸리' 조성"

## 더민주 후보들 '광주발전 10대 공약' 발표로 첫 인사

4·13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후보들이 공천확정 후 처음으로 한데 모여 '광주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21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약은 문화콘테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밸리 등 '3대 밸리' 조성을 강조했다.

후보들은 문화콘텐츠 밸리 조성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을 활성화하고 7대 문화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동차산업밸리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생산과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 광주시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견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마트 에너지 허브 구축을 위한 에너지 밸리 조성,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역 관통도로 개설, 그린행정 복합타운 조성,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기자회견에는 8개 선거구 후보 가운데 이용섭 비대위원을 뺀 7명과 홍진태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가 참석했다. 한편, 뒤늦게 전략공천을 받은 정준호·최진 후보도 공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